

이름: 김민서	이메일:
나이: 초 5학년	직업: 학생(초등)
거주지역: 아산 네방업 롯데캐슬 108동 302호	
본 행사 참여경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3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4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5
(우측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6 <input type="checkbox"/> 처음 참여

잔소리 대마왕

나는 오늘 우리집에서 순모임을 했다. 우리집에서 순모임을 할 때마다 나는 싫었다. 왜냐하면 순모임을 같이 하는 아이들이 집을 이질러 놀고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기분이 꾸라꾸라 했다. 오늘은 순모임에 이련에든 만 오지 심심하고 짜증났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안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침대에서 진동이 났다. 나는 침대를 마저다가 아빠 휴대폰을 찾았다. 기록이 있었다. 나는 가뜰살 떠다 심심하고 짜증났다. 엄마 아빠 몰래 게임을 했다. 순모임이 끝나고 잔소리 때문에 수다를 떠는 시간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때 안방으로 들어왔다. 땀 뻘뻘 나는 깜짝놀라서 휴대폰을 숨겼지만 이미 늦어진 망했다. 엄마는 그때 훔쳐냈다. 그런데 잔소리가 엄청나게 짜증났다. 엄마는 역시 잔소리 대마왕이다. 쿵

오늘은 진짜 돈이 없는 날이다. ㅈㄱ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다. ㅈㄱ

용지가 부족할 경우 다음 장을 사용해 주세요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와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대중관찰아카이브 (MOA: Mass Observation Archives)가 공동 주최하는 역사프로젝트입니다. 기증하신 일기는 21세기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기록화하는 중요 자료로써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출판 등 문화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귀하의 콘텐츠 공개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합니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 학술연구진만 제 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http://hmarchives.org/omeka/512diary/index.html>